

도 상수도 '보급 양호... 누수 과제'

보급률 99.2% · 누수율 23.2%(전국 평균 10.9%)... 누수 해결에 2028년까지 3135억원 투입

전북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누수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북도가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한 결과 보급률은 크게 향상된 반면 누수율은 대부분의 시·군이 재정적 한계로 노후관 정비에 투자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환경부에서 2015년 상수도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전북도가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99.2%로 전국 평균 98.8%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누수율은 23.2%로 전국 평균 10.9%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상수도 보급이 양호한 편이지만, 안전하고 편리한 지방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도내 도시지역(99.8%)과 농촌지역(83.3%) 간에 격차가 아직 16.5%로 2020년까지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 90%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열악한 상수도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노후 상수도 정비에 국비를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2028년까지 도내 시·군에 3,135억원을 투자

계획이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은 필요하다"며,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손쓰지 못한 상수도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무주·장수·부안 3개군이 노후 상수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도 나머지 5개 군을 국고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향후 시·군의 노후 상수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후 상수도 정비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환경복지국장은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은 필요하다"며,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손쓰지 못한 상수도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무주·장수·부안 3개군이 노후 상수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도 나머지 5개 군을 국고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등 향후 시·군의 노후 상수도 정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지방통합방위회의 개최

전북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라북도지방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민·관·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방위 지방회의는 북한의 4.5차 핵실험 등 지속적인 도발위협 속에서 지역안보태세를 점검하고, 2017년 전라북도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진 지사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비롯한 민·관·군·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는 북한정세 및 대남도발 전망, 군사대비태세 평가 및 방향,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U-20 세계축구대회 및 무주세계태권도대회 등 국제대회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테러대비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탄소학회 신임 임원진 전북 방문. 국내 최고의 탄소 전문가들이 한국탄소학회 신임 임원진이 21일 송하진 지사를 예방하고 전북도의 국제탄소포럼 행사 등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국가안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 점검과 올해 개최되는 국제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는 그동안 지역발전과 향토방위에 힘써준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전주시가 전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최정훈 경사를 비롯한 40여 명이 도지사 표창, 제35보병사단장, 전북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 /안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도, 부정청탁·음주운전 뿌리뽑는다

송하진 지사·전 청원 서약식... 올해 '음주운전 제로의 해' 강력 추진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소속 3,000여 공무원들이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로 모두 다짐했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대강당에서 2월 중 학이시습의 날을 열면서 도지사와 전 청원이 함께 청탁금지법 준수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에서는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돼 공직사회의 청렴패러다임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올해를 청원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만들자고 다짐했다.

서약식에 앞서 도지사와 전 청원은 개별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 및 음주운전 예방 서약서에 서명해 전북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제출했다.

또한 행사장 밖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진을 전시해 청원들이 음주운

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장도 마련했다.

박용준 감사관은 "올해는 공직자들의 부패고리를 차단하여 청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특히 청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동승자 징계조치, 성과평가 감점, 음주운전자 봉사활동 명령제 등 가혹할 정도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제로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안재용 기자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후원 이어져

NH농협은행-한국스카우트연맹, 유치 후원 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이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21일 송하진 지사, 함중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최용구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NH농협은행, 한국스카우트연맹 간 세계잼버리 유치 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상호 협력하고, 상호간 업무 지원이나 자문에 성실히 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전세계를 발로 뛰는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용구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은 "국가적인 이슈인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함중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NH 농협은행과의 MOU를 계기로 세계잼버리 유치 후원이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에도 간부직원 13명이 한국스카우트 회원가입을 하는 등 세계잼버리 유치 홍보와 전북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재용 기자

'새만금사업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 공동 대응

순창서 전북 시장 군수협의회 개최

전라북도 시장군수들이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전북발전을 이끌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는 21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민선 6기 3차년도 제4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과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전북도 10개 시장군수들이 참석했으며 '새만금사업 주변지역 지원 법제화'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강화'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민 암실군수는 "최근 공직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면접시험은 형식적으로 시행돼 임용 부적합자 선별 기능이 부재"하다며 "필기시험 합격자 범위를 확대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안건들을 전원합의로 의결처리하고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새만금 사업 방조제에 인접한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해수욕장에 대한 해안침식과 수질 악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 생계수단이 소멸됐다"면서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여정환경변화, 해안사구 침식 등 환경보전과 주민소득 지원 근거 마련이 시급한 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민 암실군수는 "최근 공직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면접시험은 형식적으로 시행돼 임용 부적합자 선별 기능이 부재"하다며 "필기시험 합격자 범위를 확대하고 면접시험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안건들을 전원합의로 의결처리하고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황숙주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4일 도 최대 현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해 중앙에 전달하는 등 전북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군 상생협력으로 전북 발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육성자금 지원

전북도는 어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를 대상으로 육성자금 22억68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지원해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 56개소 중 10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원받게 되는 공동체는 전국 1,100여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2015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 3회 이상 상위 5% 이내에 포함된 선진공동체, 평가점수 700점 이상인 모범 및 협동공동체, 평가점수 500점 이상인 참여공동체에 대해 도 지역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안재용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대식(1952. 5. 29.생 2016. 11. 7.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오승이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년단9133 상속한정승인 판사 오승이
▶ 피상속인: 망 강대식(1952. 5. 29.생 2016. 11. 7.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35 (풍남동 2가)
▶ 공고인: 강성민
▶ 한정승인수리일: 2017. 2. 6.
▶ 공고기간: 2017. 2. 22. ~ 2017. 4. 21.
▶ 연락처: (청구인 강성민의 주소)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8-3 (경원동 2가) 010-4923-706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